

총신대학이 지향하는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박 회 석*

교회역사가 발전하면서 많은 교파가 생겼고 그에 따라 신학도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신학에도 많은 혼란으로 인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학과 신앙을 믿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총신대학교는 우리대학의 모체인 평양신학교가 설립된 1901년부터 지금까지 개혁신학(Calvinism)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어왔다. 나아가 우리대학에서 배운 수많은 목회자들이 국내외에서 이 신학과 신앙전파와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대학의 신학과 신앙은 개혁주의이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

신학과 신앙에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에 바탕을 둔 현대 자유주의를 배격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근거한 사람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또한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을 앞세우

* 신학과장

는 신비주의 또한 동일하게 신학의 원리로는 반자들이지 않는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말씀의 원리보다 자신들이 기도나 묵상을 통해 체험한 감정적 요소를 믿고 따른다. 나아가 교회가 창안한 제도를 믿는 의식주의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됨을 믿고 가르치며 배운다.

우리대학은 신구약 66권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의 오류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원리가 됨을 믿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경은 한 부분도 예외없이 모든 내용이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믿는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내용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과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리나 윤리적 사상적 가르침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과학적 내용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다.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느 한 부분도 오류가 없는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영감을 믿을 뿐 아니라 유기적 영감도 믿는다.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저자들을 기계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불러주는데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들의 인격, 성품, 지식, 그들이 생활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 등 저자들의 내적 존재의 법칙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이다. 즉 성경기록에는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의 주도적 인도와 영감하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의미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주도적이며 인간저자의 사역은 2차적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위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그 시대에 모세가 출생토록 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교육 혹은 경

협하게 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모든 내용이 모세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 기록토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저자 모세의 성품, 교육, 경험 등의 것들을 성경기록에 이용하셨다. 그래서 인간 저자는 성경의 창작자는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수납하여 그들이 선포하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성경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작품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글로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다는 축자영감을 믿는다. 축자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배우고 익힌 용어와 문법으로 글을 쓰도록 하셨으나 용어 선택이나 문법에서 오류가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상 뿐 아니라 문자에까지 오류가 없음을 믿는다.

성경은 이와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법칙과 규범을 제공한다. 성경만이 인간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그외의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의식 등은 부차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다. 따라서 총신대학교는 성경의 권위에 절대순종하고 믿으면서 생활할 것을 제일차적 원리로 믿고 가르친다.

2.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 섭리, 구속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총신대학교에서는 믿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함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사랑으로 계속 보호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입법자요, 통치자

일 뿐 아니라 신앙과 도덕적 영역과 함께 정치, 경제, 과학, 예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문화영역에서도 절대적 권위를 스스로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쾌락이나 명예를 좇으면서 생활하는 인본주의를 반대한다. 생활철학이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세속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고 자기 충족을 위해 생활하는 원리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교육자이든, 예술가이든 무슨 업종에 종사하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그의 생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학교, 가정, 사회, 교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3.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1) 인간의 전적부패 - 인간은 지, 정, 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부패하여 선한곳이 없다. (2) 무조건적 선택 -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아무 조건이나 전제가 없이 구원받을 자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3) 제한적 속죄 -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고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4) 불가항력적 은혜 -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5) 성도의 궁극적 구원 - 선택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 받는다. 이 5대 교리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죄인을 성화시키신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의 길을 터득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친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조금이라도 좌우된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나 감정, 의지 모든 부분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선행이나 구원에 합당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사변적이고 불확실한 인간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의존된다면 그 구원은 확실성이 없다.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선택받은 성도의 구원은 확정적이다. 비록 택한 백성이 도중에 최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걱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변경이나 수정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구원을 계획,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의지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없다. 만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생하여 복음을 받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 성취, 적용하시므로 구원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성취된다.

4. 택함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며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성도의 연합과 일체성이 완성됨을 믿는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고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생활한다. 이는 모두가 한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분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 받았으며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는 하나의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는 유기체로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과 고통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며 도운다. 공동체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학원, 사회와 교회에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계명으로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공동체적 사랑을 확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통치자이시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온 세상에 확장

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님의 백성을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칠 사역자를 임명하신다. 비록 땅위의 모든 성도가 언어나 피부, 관습과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적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땅위에 제도적 교회를 세우셨다. 이 제도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이 전파된다. 따라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나 반교회주의자를 배격한다. 비록 가건적 교회가 불완전하여 불화와 불완전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가건적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뻗어나갔다. 그러나 제도적 교회의 권위만 절대화하여 교권을 앞세우는 천주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의 교훈에 위배됨을 밝힌다. 천주교는 제도적 교회의 권위를 절대화하므로 교황은 실수나 오류가 없는 무오한 사람인 것으로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과 교훈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중세교회 때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하였으나 절대권력을 소유한 교황이 타락하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교회를 지도한 결과 모든 교회가 흑암가운데 빠진 것을 역사가 가르친다.

그리고 제도적 교회의 문제점을 너무 강조하여 무교회나 반교회주의를 주창함도 잘못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보이는 현실적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가건적 교회를 통해 후세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후세에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설교나 성경공부도 필요없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도 자기들 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그것도 사실은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이름이 무교회일 뿐이다. 그들이 교회를 반대한다 하지만 교회없이 신앙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함이 아니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특정한 교리나 교회의 제도를 반대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현실에는

모순이 있음을 본다.

교회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전파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말씀이 왜곡되거나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파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에서 떠난 이단사상이 전파되거나 진리가 왜곡되어 전파되는 교회는 참교회라 할 수 없다. 또한 특정한 부분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참교회가 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의 말씀이 전혀 가르쳐지지 않거나 바른 해석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된다.

둘째, 주님께서 만드신 성례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성례라함은 성찬과 세례를 칭한다.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함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말씀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례는 강단권이 있는 사역자에 의해서만 말씀과 함께 베풀어져야 한다. 세례는 물을 뿌림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의미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연합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고백을 한 사람에게 베푸는 내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외적인 표시다. 세례받은 자를 가견적 교회의 회원으로 본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언약의 표시다.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므로 은혜를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부지런히 시행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권징을 바로 시행하는 교회다. 교회의 혼란을 막고 질서 가운데서 바른 교훈이 확장되도록 말씀에서 이탈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사법권을 행하여 바른 교육이 시행되

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훼방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말씀과 치리로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치리의 목적은 절단하여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때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를 시행해야 한다.

5. 적극적 문화관과 사회봉사를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경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을 주관함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영역을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제한하고 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근본주의와 경건주의를 배격하고 소망을 오직 신비적 경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도 반대한다.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자들은 과학이나 철학, 문화적 영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직 개인구원에만 집중시켰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지식과 학문 연구를 반대하고 오직 기도와 성경읽기만 강조하였다. 그 결과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분파주의로 전락하여 지금은 극소수로 존재할 뿐이다. 18세기에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신비적 운동에만 집착하여 성경 연구와 문화활동을 무시하였다. 근본주의나 경건주의 모두 그 시대에 부분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면도 있지만 한편만 강조하여 후대역사의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학교생활이나 직장, 주일이나 평일 모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성도는 땅위에서 성경과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직업

에 종사하든지 최상의 노력으로 역사발전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무슨 전공을 택하든지 최선의 노력으로 학업에 열중함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한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이 첫번 의무이다. 이와 함께 험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의 불행을 물질로 도와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을 돌보고 도와야 한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음적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땅의 근본적 악은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심성에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땅위의 모순과 부조리는 혁명적 무력이나 폭력으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폭력이나 무력을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총련 사태와 그 집단의 사상적 배후세력인 민중신학의 이념과 신학을 반대한다.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의 말씀선포와 기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모범적 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